

장독대

장은 숙(시인)

예부터 대를 이어 온 향아리가
내노라 뽐내는 장독대 오가며
일 년 농사로 저마다 맛낸 먹거리
사랑하던
향아리가 즐비하던 곳

추우나 더우나 반짝반짝 광내던
부지런한 우리 어머님들
해가 잘 드는 곳에 두어야 하고
손맛 따라 장맛도 달라지니
크기 따라 쓰이는 용도도 달라
커지는 장독대 크기

매일 아침 광내게 닦으며
힘들다 투덜대던 날이
추억이 된지 오래
향아리가 많아야 부자소리 듣던
시절은 온데간데없는 지금

세상 좋아져 살만해도
어머니 손맛도 함께 사라지니 아쉽네
이젠 인테리어로 남은 향아리들
그 속엔 어머니님 모습도 보이네

-「장독대」전문

장독대는 장독 따위를 놓아두려고 만든 약간 높직한 곳이다. 간장이나 된장을 담그거나 담아 두는 장독을 정갈하게 정성을 다하여 보물처럼 여겼다. 장독대를 보고 그 집의 모든 것을 가늠하는 척도 역할을 할 만큼 귀했으나 음식을 집에서 해먹다가 시장에서 사먹게 되고 이미 가공되어 있어서 즉석에서 완성되는 인스턴트가 나오면서 가치가 떨어졌다.

문명의 이기는 잔손가는 걸 성가 싫어하고 어머니 손맛을 잊고 사는데 익숙해졌다. 이사를 가는 날 거치적거리는 존재로 전락하고 숨어 있는 추억속의 살았던 삶의 모습을 지웠다. 아직도 나이든 세대에선 인테리어로 남은 향아리에 어머니가 그림다.(윤제철)

살구빛깔 그리움

김 미 옥(수필가)

산책길에서 살구를 만났다. 풀밭을 수놓은 환한 점들이 단박 눈길을 끌었다. 아침 햇살 비껴드는 공원에서 마주친 예쁜 그림 한 장. 명화 앞에라도 선 것처럼 눈이 열렸다. 살구는 떨어지며 명들고 상처가 났지만 성한 것 몇 개 집어 들었다. 손바닥에 올려놓고 눈을 맞추니 따스한 색감에 복숭아처럼 보송보송한 솜털이 꼭 어릴 적 친구처럼 정겨웠다. 저절로 먼 추억들이 따라왔다.

초등학교 입학 전후였지 싶다. 친구와 나는 살구나무집 아래 개울가에서 놀았다. 개울을 끼고 있는 그 집 사립문 옆에 품이 넓은 살구나무가 개울 쪽으로 반쯤 기울어 있었다. 살구가 익을 무렵이면 보리를 수확하고 모내기하느라 어른들은 눈코 뜰새 없이 돌아치기 바빴다. 심심해진 우리는 종일 물가에서 놀았다. 물이 흐르는 옆마른 돌밭이 우리 놀이터였다. 그 집은 아이들이 없어 눈치 볼 것도 없고 그늘도 적당히 있어 소꿉놀이하기에 그만이었다. 게다가 개울 쪽으로 떨어지는 살구는 온전히 우리 차지였으니 더할 나위 없었다. 덕분에 사금파리 풀꽃 살림도 그리 가난하지 않았다. 다만 살구가 가끔 물속으로 풍당 잠수할 때면 우리는 아쉬운 눈길을 주고받았다. 물먹은 살구는 그야말로 무맛이었으니까.

그때 이후로 살구는 추억의 과일로 늘 향수를 부른다. 보드라운 감촉에 연한 향기지만 농익은 살구의 달보드레 독특한 향을 어디에 비할까. 단단하지도 말랑하지도 않은 열매를 두 손으로 잡고 쪼개면 가볍게 갈라지며 씻은 듯 말끔한 씨가 쪽 얼굴을 내민다. 살구는 쪼개는 맛이 먹는 맛 못지않다. 또 통째로 입에 넣고 보송한 살결을 느끼며 어금니로 살짝만 깨물어도 이내 분리되는 씨를 툭 뱉어내는 것도 재미있다. 그 구멍 송송 뽀송한 씨조차 소꿉 살림에 보탬 수 있었으니 해가 기우는 줄도 모르고 놀았다.

늦봄이나 초여름 과일가게 화려한 과일 틈에서 살구를 만나면 더없이 반갑다. 참외 수박 토마토처럼 강렬하게 소리치는 원색들 사이에서 조용하고 수더분하지만 결코 기죽지 않는 살구가 눈길을 당긴다. 주황과 살색 사이 어디쯤의 그 다정하고 온화한 빛깔이 참 매력적이다. 산뜻하진 않지만 묘하게 부신 존재감을 무시하지 못한다. 하지만 반색하며 들었다가 실망하기를 얼마였을까.

개량종 살구는 정말 아이 주먹만큼이나 커졌다. 고운 살빛에 복슬복슬 탐스러운

볼이 시선을 끌지만 예전의 그 맛에는 한참 미치지 못한다. 향기도 거의 없어 아쉬운데 아무런 맛조차 느껴지지 않는다. 서둘러 한입 물었다가 와르르 무너지던 기대라니. 눈길 끈 자태가 아까울 정도다. 빛 좋은 개살구라는 말이 저절로 고개를 든다. 그래서 요즘은 대체로 눈요기로 지나지만 추억의 살구는 여전히 생생한 향기로 남아 유혹하고, 봄이면 난 여전히 살구의 계절을 기다린다.

어릴 적 과일나무가 많은 집이 참 부러웠다. 신작로에 접한 터 좁은 우리 집은 그럴 여유가 없었다. 아버지 노름빚에 기와집까지 날리고 이사한 집이니 오죽했을까. 넓은 정원에서 철따라 갖가지 꽃이 피고 탐스러운 열매가 익어가는 걸 지켜보는 것만으로도 마냥 행복할 것 같았다. 내 마음을 아신 아버지께서 언젠가 뒷문 옆 옹색한 텃밭 울타리에 살구나무를 심으셨다. 봄이 시작되면 날마다 꽃 피기를 기다리는 설렘. 그다지 크지 않은 나무지만 연분홍 살구꽃이 하늘하늘 손 흔들며 봄 하늘을 수놓으면 마음은 꽃구름을 타고 올랐다. 멀리 미지의 세계로 날아가는 꿈을 꾸었다.

사립문 옆 꽃그늘에 서서 올려다보는 것만으로도 배가 불렀다. 새봄 들어 처음으로 맨다리에 코르텐 꽃분홍치마를 입고 나무에 기대서서 얼굴에 꽃물들이던 단발머리가 아직도 생생한 것으로 남아있다. 버스가 먼지를 구름처럼 일으키며 지나가도 땡땡하게 부푼 마음은 가라앉히지 못했다. 그런데 우리 집 살구나무는 열매보다 꽃으로 더 깊이 남은 걸 보면 열매가 신통찮았던지 모를 일이다.

처녀 시절 즐겨 입던 살구색 원피스도 생각난다. 반소매에 브이넥, 검은색 좁은 벨트가 딸린 A라인 원피스는 디자인보다 색깔에 끌려 장만하지 않았을까. 그때나 지금이나 브이넥을 그다지 선호하지 않으니까. 가끔 사진으로 넘겨다보면 옷 빛깔처럼 밟그레 순수했던 마음이 생각나 요즘도 조금 설렌다. 남의 시선 받는 걸 좋아하지 않지만 그 원피스를 입으면 저절로 기분 좋아지고 허리가 펴지던 기억. 출근할 때보다 따로 외출할 때나 사람들 만날 때 주로 입었던 걸 보면 제법 아꼈던 것 같다. 아련한 추억이다.

튀지 않으면서도 화사하고 부드러운 살구색은 부담 없는 친구 같아 싫증나지 않는다. 요즘도 길을 가다 살구색 옷 입은 사람이 있으면 저절로 고개가 돌아간다. 예전 기분이 떠올라 끌리는지도 모르겠다.

생각만으로도 가슴 따뜻해지는 살구 빛깔 그리움이다. 봄 햇살 투명하게 내리는 날 살구꽃 그늘에 다시 한 번 흠뻑 젖고 싶다. 향긋한 그 시절로 가보고 싶다.